

개회예식

성지축복식✠116주보3면
순행·입당성가..... 203장..... 다함께

말씀의 전례

본기도 집전자
영원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성자께서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 독서 (얏는다)이사50:4-9상말은이
시 편 시편 31편 다함께



- 주여, - |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울다 지쳐 눈은
몽롱하고| 괴롭|습니다.
 - 목이 타며 애간장이|뚫어|집 - 니다. -
- ◎ 괴로와서 숨이 넘어|갈 것|같으며
 - 한숨으로 세월을|보냈|니 - 다. -
- 죽은 사람처럼 기억에서|사라|지고
 -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 - 다. -
- ◎ 사람들의 비방소리 들려오며, 헐박은 사망에서|미쳐|
웁니다.
 - 그들은 나를 노려 무리짓고 이 목숨 없애려고| 음모|
합 - 니다. -
- 주여, 나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 당신만이 내 하느님이시라| 고백|하 - 며 -
- ◎ 나의 앞날을 당신의 손에|맡기|오니
 - 악을 쓰는 원수들의 손에서 이 몸을| 건져|주 - 소서.
- 영광 -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 - 멘 -

2 독서 (얏는다)필립2:5-11말은이
수난복음 (선다)루가 22:14-23:56말은이
사도신경 (선다)✠250 다함께

감사성찬례

성찬의 전례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251말은이

평화의 인사 (선다) ✠287 다함께
봉헌성가 189장 다함께
예물기도✠287말은이
성찬기도 (1양식) ✠ 257
거룩하시다 (A곡)✠257 / ♪ 71다함께
마침영광송 ♪ 64 다함께
주의기도 ✠ 269 / ♪ 65 다함께
성체나눔 ✠ 269 다함께
하느님의 어린양 (A곡) ✠ 270 / ♪ 72다함께
영성체 (얏는다) ✠ 270
영성체 성가 성가대 성가대
영성체 후 기도 (선다) 다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거룩한 십자가를 공경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외에는 아무 것도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
도하나이다. 아멘
광고 (얏는다)말은이

파송예식

축복기도 (선다)✠288 집전자
파송 ✠ 272말은이
파송성가 193장 다함께

| | 이번 주일 성찬례 (4월 10일) | | 다음 주일 성찬례 (4월 17일) | |
|--------------|--|--------|--|--------|
| | 9시 | 11시 | 9시 | 11시 |
| 집 전 | 주낙현 신부 | 주낙현 신부 | 구균하 신부 | 주낙현 신부 |
| 설 교 | 수난복음 | 수난복음 | 주낙현 신부 | 주낙현 신부 |
| 1독서 | 서정민 | 박계자 | 우영현 | 전병도 |
| 2독서 | 우영현 | 이성빈 | 정상임 | 김경아 |
| 대 도 | 신명식 | 신환중 | 신명식 | 김종희 |
| 십자가 | 박해웅 | 이용해 | 윤용환 | 차기성 |
| 다음 주일 4월 17일 | 전례독서 사도10:34-43 시편 118 1고린15:19-26 요한 20:1-18 성 가 입당 220장 봉헌 224장 영성체 성가대 파송 225장 | | | |
| 교 회 청 소 | 4월 16일 G.F.S 2조 이난희 송미정 송미경 강수옥 이은미 김경아 | | 4월 23일 엑셀타테회 김재현 박남미 이연희 이정주 유희주 | |



성공회 영등포 성당

St. Christopher's Anglican Church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 02-2671-6290, 2633-8877(팩스) © stchris@anglican.k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종려가지와 십자가 사이 — 인간의 배신과 희망

(루가 23:1-49)

‘호산나, 찬미 받으소서’ 하며 외치던 환호와 ‘그 사 람을 죽이시오’ 하는 성난 외침 사이에 도대체 무슨이 있었던 것일까요?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예루살 렘 입성을 축하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데는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습니 다. 성지를 축복하고 손에 받아든 채로 우리는 주님 의 수난 복음을 듣습니다. 이 격렬한 변질과 모순의 순간을 성주간 전례 안에서 우리 자신과 사회를 돌아 보며 뼈아프게 직시하라는 부탁입니다.

불의한 재판과 모진 고문,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 이 이어집니다. 인간의 배신은 재빠르고, 희망의 신 리는 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희망을 욕망 으로 맞바꾸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진실을 알고도 모 략으로 덮어버리는 권력의 뻔뻔함을 목도합니다. 힘 을 보여줄 때 가까이하던 이들이 슬금슬금 쫓무니를 빼고, 멀리 주변부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던 이들이 조 심스럽게 십자가 고통의 목격자로 중심에 등장합니 다. 인간 내면의 어둠과 사회 외면의 불의 속에 감춰 진 것들을 드러내며, 인간의 기존 생각과 관계를 뒤집 는 일이 주님의 십자가 수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루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정치적 사건이라 고 분명하게 고발합니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야합하여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습니다. 예수님의 무 죄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도, 권력자들은 대중의 인 기에 영합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진실과 정의를 묻어

버립니다. 서로 경쟁하던 기득권자들은 정치적 인기 주의에 몸을 던져, 무고한 사람을 희생하는 불의를 작당하면서 서로 ‘다정한 사이’가 됩니다. 무죄한 사 람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뻔뻔 한 변명을 내놓습니다. 모든 형태의 기득권자와 권 력자가 보이는 이런 행태를 신앙인은 식별할 줄 알 아야 합니다.

어떤 항변도 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님 곁에 다가온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시골 무지렁이 키레네 시몬이 난데없이 등장하고, 제자들마저 도망 친 십자가의 길을 눈물 흘리며 동행하는 여인들이 예 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십자가 처형 틀 위에서 같 은 죽음의 고통을 받던 죄수가 낙원의 약속을 받습니 다. 이들은 신앙의 내력, 재력과 권력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하릴없이 고통과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십 자가 위에서 이름없이 고통받는 이들의 연대를 선언 합니다. 고통의 연대를 통하여 인간과 사회 안팎에 너절한 차별과 분열과 분리의 ‘회장’을 찢어내는 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환호의 종려가지가 아니라, 고통의 십자나무 위에 우리의 희망과 세상의 구원이 달려있습니다. 높은 권 력의 기득권을 ‘비워서’ ‘종의 신분’으로 내려앉아 세 상 고통의 밑바닥과 손을 잡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 설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관 할 사 제 주낙현 요셉 신부
보 좌 사 제 구균하 요나로렌스 신부
신 자 회 장 김종희 요셉
사 제 회 장 차기성 안드레

교회위원 구정애 변금숙 서남철 신환중 이성식 이평환 조진성 추경민 한재업
원로위원 서세룡 유호애 송갑호 추형두 이충웅 이용해 박해웅 윤용환
보혈조력 박해웅 신환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해 이종한 차기성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업 반주 고아랑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경희 이난희 이광자마리아

■ 전례와 사목

1. 성주간 - 부활성삼일 전례 안내

성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11-15) 오전 6시 30분에 성전에서 십자가의 길 예식을 합니다.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활성삼일과 부활대축일

옆에 있는 부활성삼일 전례 안내에 따라,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대축일 봉헌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활주일 이후 주간 아침 성찬례

부활주일 이후부터, 주간 성찬례는 화, 수, 목, 금 오전 6시 30분에 성전에서 봉헌합니다.

■ 알림

1. 이용해 애단 원로위원 팔순 기념 선물 증정

이애단 원로위원께서 작년 팔순을 기념하여 전교우들 수 건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종한 요한 원로위원 추대 예식

다음 주일(부활주일) 오전 11시 성찬례 중에 이종한 요한 교우의 원로위원 추대예식을 합니다.

3. 부활맞이 대청소

오늘 11시 성찬례 후, 각 단체방과 창고를 청소하고 정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연중 봉헌 서약 접수

봉헌서약서를 연중 접수합니다. 봉헌의 신앙에 관한 안내문을 잘 읽으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공회 성가책 판매

주일 성찬례와 전례 중에 사용할 개인 성가책을 판매합니다. 기도서와 같은 크기이며 가벼워서 휴대하기 좋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 성가를 사용하고 전례 중에 찬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정가 2만원입니다.

6. 제단 꽃 봉헌 요청

사무실 앞에 신청표에 봉헌하시는 분의 성함과 원하시는 날짜 그리고 내용을 쓰시고 봉헌해 주십시오.

■ 활동단체 소식

◆ 어머니회 물품 판매

- 다시마 1kg(1박스) 1만7천원 - 참기름 1병 1만원
- 미역 1kg(1박스) 2만5천원 - 들기름 1병 1만1천원
- 엿기름 600g 4천원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유창환(13일) 문해화(14일)

부활 성삼일 전례

성주간 월-금요일(4월 11일-15일)

오전 6시 30분 십자가의 길 예식

성 목요일(4월 14일)

오전 6시 30분 십자가의 길 예식

오후 8시 세족례, 성체제정 기념 성찬례

성 금요일(4월 15일)

오전 6시 30분 십자가의 길 예식

오후 8시 주의 수난 예식 (장엄기도, 십자가 경배)

성 토요일(4월 16일)

(침묵의 토요일) 오전 예식 없음

부활전야 오후 8시 부활밤 예식

(빛의 예식·말씀의 전례·세례언약갱신·성찬의 전례)

부활 대축일(4월 17일)

오전 9시 부활 성찬례

오전 11시 부활 성찬례

※ 현금 액수는 인쇄 종이 주보에만 실리며, 전자문서(이메일, 홈페이지) 주보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 십일조 · 월정현금

강수옥 김건우 김복자 김영대 김종희 박영수 서세룡 송미경 신명식 우영현 유윤근 유인환 윤범기 윤영옥 이충웅 정명옥 정정훈 조혜순 주애다 차기성 최효운 추경민 추형두

■ 주정현금

강서린 김삼홍 김예담 김요한 박남미 송미경 송미정 심동현 이경희 이성빈 이정숙 정명옥 정상임 주애다 주창남 주창순 차기성 홍서아

■ 감사현금

김영대(생일) 박계자(생활) 우영현(영상장비)

이복련(건강) 정준희(생활) 무명(생활)

사순 김용학 박계자 박영수 변금숙 서남철 송미경 신한중 윤영옥 이경희 이종한 주창순 한재업 무명19명

■ 기타현금 (미사 예물 · 주일학교 · 학생회 등)

목적 현금

■ 성공회대장학금

김복자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봉헌 안내

■ 십일조(월정현금) 일반·감사 등 봉헌

기업은행 083-082654-04-015

고난주일 성지축복 및 순행 예식

성지축복

-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 + 기도합니다.
- +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죄악과 죽음을 이기게 하셨나이다.
- + 이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은 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환호하였나이다.
- + 비오니, 이 나무 가지를 축복하시어 ✠이를 가지고 구세주를 맞이하는 우리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 아멘

(성수를 뿌리고, 분향합니다)

복음

-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 + 주님의 복음입니다.

순행

- + 평화의 주님을 따라 갑시다.

(제대 앞으로 나와 성지를 받아 자리로 돌아갑시다)

- + 기도합니다.
- + 구세주와 임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가 성지를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 + 구하오니, 이 가지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수난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을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소서.
- +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 기도해 주세요 +

■ 교회를 위하여

- ◆ 영등포 성당의 신앙 회복, 전례 회복, 교회 회복을 이루도록
- ◆ 지역 사회와 협력하도록
- ◆ 새교우를 환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 ◆ 코로나 19를 넘어 일상회복을 위하여
- ◆ 대선 이후 사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 ◆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 가정을 위하여

- ◆ 사순절기 동안 성무일도를 바치는 가정이 되도록
- ◆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위하여

■ 어려운 교우와 환자를 위하여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정상운 권영달 김경옥 이명길 윤길자 이현숙 채옥순 최종주 신희숙 신정자 유호애 김복근 민병화

■ 임 신 정셋별 ■ 군복무 양승환 김예찬 ■ 유 학 이재성(독일)

■ 장기출장

박지혁 김슬기 윤상기 한지원(미국) 서한열(캐나다)